

랭크업 무료 공개분

STEP 0 - 2 딸깍 가이드

키워드 발굴 → 플랫폼 선택 → 도메인·기본 세팅

총 소요 시간 약 3~4 시간 | 비용 도메인 값 약 2 만원 | 사전 지식 0

이 가이드를 읽는 법

표기	뜻	당신이 할 일
딸깍 N	순서대로 실행하는 클릭 단위 지시	읽고 그대로 실행. 해석·판단 금지
복붙 템플릿	그대로 복사해 쓰는 문장·시트 양식	복사해서 붙여넣기만
판정표	갈림길에서 답을 정해주는 표	내 상황의 행을 찾아 그 결론을 따름
통과 게이트 ✓	단계 종료 조건. 전부 체크되어야 다음 단계로	체크박스 전부 채우고 스크린샷 저장
막혔을 때 처방전	해당 단계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사고 5 가지	증상이 같은 줄을 찾아 처방대로

단 하나의 규칙: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다. 이 가이드의 가치는 정보가 아니라 순서에 있다. 어디선가 본 방법이 생각나도, 지금은 이 순서대로만 간다.

STEP 0. 키워드 발굴 — 검색되는 주제 30 개 확보 (약 90 분)

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키워드부터 정하는 이유: 사이트는 그릇이고 키워드는 손님이다. 손님이 오는 길목(검색 수요는 있는데 경쟁은 약한 키워드)을 먼저 확보하면, 가볍게 만든 사이트도 그 길목에서는 상단에 선다. 반대로 키워드 없이 만든 사이트는 아무리 예뻐도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.

준비물 (5 분)

딸깍 0-1 네이버 계정,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 둔다.

딸깍 0-2 구글 시트(sheets.google.com) 또는 엑셀에서 새 문서를 만들고 이름을 "키워드금고"로 저장한 뒤, 1 행에 아래 7 개 컬럼을 그대로 만든다.

복붙 템플릿 — 키워드금고 시트 1 행

A: 키워드 B: 출처(자동완성/연관/직접) C: 월간검색수(PC+모바일 합산)

D: 1 페이지 점령자(공식/매체/블로그/부실) E: 경쟁판정(O/△/X) F: 추세(유지/상승/하락) G: 채택(Y/N)

0-1. 주제 정하기 (10 분)

딸깍 1 아래 3 문항에 답이 "예"가 되는 주제 후보를 3 개 적는다. 문항: ① 내가 남보다 반걸음이라도 먼저 겪었거나 아는 것인가? ② 이 주제로 글감 30 개가 나오겠는가? ③ 이 주제를 검색하는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사거나 신청하는가(수익 연결)?

딸깍 2 3 개 중 ①②③ 모두 "예"인 것을 채택한다. 복수면 ①(경험)이 가장 강한 것을 고른다. 판단 끝. 더 고민하지 않는다.

주제가 하나도 안 떠오를 때 고르는 예시 풀: 특정 직군 이직·취업 후기, 특정 지역 생활정보(병원·학원·맛집 아님, 행정·시설 정보), 특정 제품군 비교(육아템·캠핑장비·주방가전), 부업·재테크 실행기, 자격증 독학, 특정 질환·기술 경험기(본인 경험 한정), 소상공인 실무(세금·인허가), 반려동물 케어, 특정 취미 입문(테니스·클라이밍·베이킹), 디지털 도구 사용법, 유학·비자 절차, 중고거래·리셀.

0-2. 네이버 자동완성 수확 (20 분) — 목표 50 개

딸깍 1 naver.com 검색창에 주제어를 입력하고 스페이스 한 칸을 친다. 아래에 뜨는 자동완성 문구를 전부 시트 A 열에 옮겨 적는다(출처: 자동완성).

딸깍 2 주제어 뒤에 아래 접미어를 하나씩 붙여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. 접미어 12 종: 방법, 후기, 비용, 가격, 추천, 비교, 차이, 순서, 기간, 조건, 서류, 실패.

딸깍 3 주제어 뒤에 ㄱ, ㄴ, ㄷ ... 자음을 한 글자씩 붙여 뜨는 자동완성도 수확한다(시간 없으면 ㄱ·ㄴ·ㄷ·ㅎ 4 개만).

딸깍 4 주제어로 검색을 실행한 뒤, 결과 페이지의 "연관 검색어"와 "함께 많이 찾는" 블록의 문구도 전부 시트에 담는다(출처: 연관).

딸깍 5 50 개가 안 되면 접미어에 대상어를 조합한다: 초보, 직장인, 자취, 아기, 40 대, 소자본, 무자본, 지역명. 예: "홈베이킹" → "자취생 홈베이킹 도구".

0-3. 월간 검색수 확인 (20 분)

딸깍 1 searchad.naver.com 접속 → 회원가입(사업자 없어도 개인으로 가입 가능, 광고를 집행하지 않아도 도구는 무료다).

딸깍 2 로그인 후 "광고시스템" 진입 → 상단 메뉴 [도구] → [키워드 도구] 클릭.

딸깍 3 시트의 키워드를 5 개씩 복사해 입력창에 넣고 [조회하기]. 결과의 월간검색수 PC + 모바일 두 숫자를 더해 시트 C 열에 적는다.

딸깍 4 전 키워드 조회가 끝나면 아래 판정표대로 각 행을 분류한다. 기준을 외울 필요 없다. 표만 따른다.

월간검색수 합산	판정	이유
100 미만	탈락	수요 자체가 없다. 상단에 올라도 아무도 안 온다
100 ~ 1,000	황금 (최우선 채택)	수요는 있는데 경쟁자가 거의 안 노리는 구간. 신생 사이트의 주력
1,000 ~ 5,000	채택	본 게임 구간. 사이트가 자리 잡는 2~3 개월 차부터 공략
5,000 초과	보류	경쟁 과열. 지금은 못 이긴다. 나중에 필라(허브) 글 제목용으로만 보관

0-4. 경쟁 판정 (20 분) — 이길 수 있는 자리인지 눈으로 확인

딸깍 1 탈락을 제외한 각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실제로 검색한다. 1 페이지에 무엇이 떠 있는지 보고 아래 판정표로 D·E 열을 채운다.

1 페이지 점령자	판정	의미
공공기관·공식 사이트·뉴스·대형 매체가 다수	X (포기)	권위로 밀리는 자리. 개인 사이트가 비집을 틈이 없다
2 년 이상 지난 글, 질문글, 내용 부실한 문서 다수	O (즉시 공략)	검색수요 대비 콘텐츠 공백. 제대로 쓴 글 하나로 이긴다
개인 블로그·카페 글이 다수인데 품질이 좋음	△ (2 순위)	이길 수 있으나 글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자리

딸깍 2 같은 키워드를 구글에서도 한 번 검색해 같은 기준으로 본다. 네이버 O + 구글 O 면 E 열에 O 를 두 번(OO) 표시한다. 이게 최우선 키워드다.

0-5. 추세 확인 (10 분, 선택이지만 권장)

딸깍 1 datalab.naver.com 접속 → [검색어트렌드] → 채택 후보 키워드를 주제어 단위로 입력, 기간 3 년, 조회.

딸깍 2 그래프가 우하향이면 F 열에 "하락"을 적고 채택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. 계절성 피크(예: 연말정산)는 피크 2 개월 전 발행용으로 메모한다.

0-6. 최종 채택 (10 분)

딸깍 1 G 열 채택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: [황금 또는 채택] 이면서 [O 또는 OO] → Y. 그 외 전부 N. Y 가 30 개면 끝.

딸깍 2 Y 가 30 개 미만이면 0-2 로 돌아가 대상어 조합으로 재수확한다.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. 기준을 낮추면 STEP 8 에서 쓴 글이 전부 묻힌다.

통과 게이트 ✓ STEP 0 종료 조건

- ☐ 키워드금고 시트에 채택(Y) 키워드 30 개 이상
- ☐ 30 개 전부 C·D·E 열이 채워져 있음 (빈칸 = 미통과)

- ☐ 황금 구간(100~1,000) 키워드가 최소 10 개 포함
- ☐ 시트 전체 스크린샷 1 장 저장

막혔을 때 처방전

- 검색수가 전부 100 미만 → 주제가 너무 좁다. 주제를 한 단계 넓혀(예: "제로웨이스트 주방수세미" → "제로웨이스트 주방") 0-2 부터 다시.
- 검색수가 전부 5,000 초과 → 주제가 너무 넓다. 대상·상황·지역 수식어를 붙여 롱테일로 쪼갬다(예: "다이어트" → "직장인 저녁 다이어트 식단").
- 자동완성이 거의 안 뜸 → 주제가 문어체다. 사람들이 실제 말하는 단어로 바꾼다(예: "차량 정기점검" → "자동차 검사").
- 키워드 도구 조회 결과가 "< 10"으로만 나옴 → 그 키워드는 탈락 처리하되, 조회 결과 하단에 함께 뜨는 연관 키워드 목록을 시트에 추가 수확한다.
- 경쟁 판정이 전부 X → 키워드가 아직 넓다. X 받은 키워드에 접미어를 한 번 더 붙여 재검색하면 대부분 O 구간이 나온다.

STEP 1. 플랫폼 선택 — 5 문항으로 30 초 결정 (약 30 분)

여기서 며칠씩 검색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. 그래서 이 단계는 선택을 없앴다. 아래 5 문항에 답하고, 많이 나온 알파벳이 곧 당신의 플랫폼이다. 세 플랫폼 모두 이 커리큘럼으로 상위노출까지 갈 수 있으므로, "잘못 고르는" 경우는 없다.

5 문항 분기표

문항	A	B	C
Q1. 월 고정비는?	0 원이어야 한다	월 1~2 만원 가능	월 2~4 만원 가능
Q2. 최종 목적은?	애드센스·글 수익	상품·서비스·예약 판매	장기 자산·확장(무엇이든)
Q3. 설정 화면 울렁증?	심하다. 글만 쓰고 싶다	보통. 관리자 화면 정도는 OK	없다. 만지는 걸 좋아한다
Q4. 소유권·이전 자유?	덜 중요 (빨리 시작이 우선)	보통	완전한 소유가 중요
Q5. 주당 투입 시간?	3 시간 미만	3~5 시간	5 시간 이상

결과	당신의 플랫폼	동점 규칙
A 최다	티스토리	A=B 동점 → Q2 의 답을 따른다
B 최다	아임웹	B=C 동점 → Q1 의 답을 따른다
C 최다	워드프레스	A=C 동점 → 워드프레스 (시간이 있다면 자산성이 이긴다)

결정 후 알아둘 것 (읽기만, 다시 고민 금지)

항목	티스토리 (트랙 T)	아임웹 (트랙 I)	워드프레스 (트랙 W)
비용	무료 + 도메인비만	월 1~2 만원대 플랜 + 도메인	호스팅 월 1~3 만원 + 도메인
개인도메인	연결 가능	연결 가능	기본
애드센스	가능 (승인 사례 풍부)	가능하나 콘텐츠형엔 불리	가능·자유도 최고
SEO 자유도	중 (플랫폼 제약 있음)	중 (기본기 내장, 세부 제약)	상 (전부 제어 가능)
최대 리스크	플랫폼 종속·정책 변경	이전 어려움(종속)	초기 세팅 난이도
이런 사람	글 수익 부업러	판매·예약 있는 사장님	장기 자산 만들 창업가

통과 게이트 ✓ STEP 1 종료 조건

- ☐ 5 문항의 답(A/B/C)을 키워드 금고 시트 빈 탭에 기록
- ☐ 결정된 플랫폼 이름과 결정 근거(최다 알파벳) 기록
- ☐ 이후 모든 단계에서 자기 트랙(T/I/W)만 읽기로 약속 — 남의 트랙 기웃거리지 않기

STEP 2. 도메인 구입과 기본 세팅 (약 60~90 분 + DNS 대기)

이 단계가 끝나면 <https://내도메인> 으로 접속되는, 검색엔진 수집이 열린 빈 사이트가 생긴다. 내용은 아직 없어도 된다. 오늘의 목표는 오직 "주소가 살아있는 상태"다.

2-1. 도메인 이름 짓기 (10 분)

딸깍 1 아래 규칙표로 후보 3 개를 만든다. 규칙에 걸리면 그 이름은 버린다. 애착 금지.

규칙	기준	예
길이	영문 12 자 이내, 짧을수록 좋다	homebaking-lab (X, 김) → bakinglab (O)
구성	하이픈(-)·숫자 금지, 발음하면 철자가 떠올라야 함	bak1ng-l4b (X)
확장자	.com 1 순위 → 없으면 .co.kr / .kr	값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
주제 연상	주제어 또는 브랜드가 반 박자에 연상	키워드 전부를 욕여넣지 않는다
권리 확인	kipris.or.kr 에서 동일 상표 검색, 유명 브랜드 포함 금지	분쟁 예방

2-2. 도메인 구입 (15 분)

딸깍 1 gabia.com 접속 → 검색창에 후보 1 안 입력 → 등록 가능이면 담기, 아니면 2 안·3 안 순서로.

딸깍 2 결제 단계에서 등록 기간은 1 년만 선택한다. 함께 쓰는 부가서비스(호스팅, 보안, 메일 등) 체크박스는 전부 해제한다. 지금은 도메인만 산다.

딸깍 3 가격 상식: .com 기준 연 1 만원대 중반~2 만원대가 정상 범위. "첫해 900 원" 류는 갱신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한다. 결제 후 가비아의 "My 가비아 → 도메인 관리" 화면이 보이면 완료.

참고: 카페 24·후이즈·클라우드플레이어 등 어디서 사도 무방하다. 이 가이드는 국내 초보 기준 화면이 가장 단순한 가비아로 통일했다.

2-3. 트랙별 사이트 개설 + 도메인 연결 (30~50 분)

자기 트랙만 읽는다. 다른 트랙은 존재하지 않는 셈 친다.

트랙 T — 티스토리

딸깍 T1 tistory.com →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 → [블로그 만들기]. 블로그 주소(xxx.tistory.com)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된다. 어차피 개인도메인으로 덮는다.

딸깍 T2 블로그 관리 홈 → [관리] → [블로그] 메뉴에서 "개인 도메인 설정"을 찾아 내 도메인(예: bakinglab.com)을 입력한다. 화면에 티스토리가 요구하는 DNS 설정값(A 레코드 IP 또는 CNAME 대상)이 표시된다. 이 화면을 캡처해 둔다.

딸깍 T3 새 탭에서 My 가비아 → 도메인 관리 → [DNS 관리(레코드 설정)] → T2 에서 캡처한 값을 그대로 입력한다. 타입(A/CNAME), 호스트(@ 또는 www), 값(IP/주소)을 한 글자도 바꾸지 말고 옮긴다 → 저장.

딸깍 T4 반영은 보통 10 분~수 시간, 최대 48 시간. 티스토리 개인 도메인 설정 화면에 "연결됨/사용 중" 표시가 뜨고 보안 접속(https) 인증서가 자동 발급되면 성공.

딸깍 T5 [관리] → [블로그] 화면에서 블로그 공개 설정이 "공개"인지, 검색엔진 수집 관련 항목이 허용인지 확인한다.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후 모든 단계가 무효다.

트랙 I — 아임웹

딸깍 I1 imweb.me → 가입 → [사이트 만들기] → 템플릿은 아무거나 고른다(디자인은 STEP 3 이후에 다룬다. 지금 고르는 데 10 분 이상 쓰지 않는다).

딸깍 I2 개인도메인 연결은 유료 플랜에서 가능하다. 요금제 페이지에서 가장 낮은 유료 플랜을 결제한다 (연결만이 목적이므로 상위 플랜 불필요. 나중에 올릴 수 있다).

딸깍 I3 사이트 관리자 → 환경설정 → [도메인 연결] 메뉴 → 보유 도메인 입력 → 화면에 안내되는 네임서버 또는 DNS 레코드 값을 확인하고 캡처.

딸깍 I4 My 가비아 → 도메인 관리에서, 아임웹이 네임서버 방식을 안내했으면 [네임서버 설정]에 그 값을, 레코드 방식을 안내했으면 [DNS 관리]에 그 값을 그대로 입력 → 저장 → 반영 대기(최대 48 시간).

딸깍 I5 아임웹 관리자에서 연결 완료 표시와 https 자동 적용을 확인한다. 환경설정의 검색엔진 최적화 (SEO) 메뉴에서 "검색엔진 노출 허용"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.

트랙 W — 워드프레스

딸깍 W1 호스팅은 관리형(매니지드) 워드프레스로 시작한다. 국내 화면이 편하면 카페 24 "매니지드 워드프레스", 영어 화면이 괜찮으면 Cloudways 최저 플랜. 이 가이드는 카페 24 기준으로 쓴다.

딸깍 W2 cafe24.com → 호스팅 →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신청 → 신청 과정에서 워드프레스 자동 설치를 선택한다. 관리자 아이디·비밀번호는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한다.

딸깍 W3 호스팅 관리 화면의 도메인 연결 메뉴에 내 도메인을 추가하고, 안내되는 네임서버 값을 My 가비아 → [네임서버 설정]에 그대로 입력한다 → 반영 대기.

딸깍 W4 연결 후 호스팅 관리 화면에서 SSL(https) 발급 버튼을 눌러 무료 인증서를 발급한다(자동 발급이면 확인만).

딸깍 W5 내도메인/wp-admin 으로 관리자 접속 → [설정] → [읽기] → "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차단"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 체크되어 있으면 해제 후 저장. 워드프레스 최다 사고 지점이다.

딸깍 W6 [설정] → [고유주소]에서 "글 이름"을 선택 → 저장. URL 이 ?p=123 이 아니라 /글제목 형태가 되게 하는 설정으로, 지금 1 분이 나중의 대공사를 막는다.

2-4. 최종 접속 검증 (10 분)

딸깍 1 시크릿 창(Ctrl+Shift+N)을 열고 https://내도메인 을 입력한다. 자물쇠 아이콘이 뜨고 사이트가 열리면 1 차 통과.

딸깍 2 http://내도메인 (s 없이)을 입력한다. 자동으로 https 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.

딸깍 3 www.내도메인 과 내도메인 둘 다 입력해 본다. 둘 중 하나로 통일되어 이동하면 정상. 둘이 서로 다른 화면이 나오면 처방전 참조.

통과 게이트 ✓ STEP 2 종료 조건

- ☐ https://내도메인 정상 접속 스크린샷 (자물쇠 보이게)
- ☐ http → https 자동 이동 확인
- ☐ 검색엔진 수집 허용 설정 화면 스크린샷 (트랙별 T5 / I5 / W5 화면)
- ☐ 도메인 관리 계정·사이트 관리자 계정 정보를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

막혔을 때 처방전

- 48 시간이 지나도 연결 안 됨 → 90%는 레코드 오타다. 안내값과 입력값을 한 글자씩 대조. 특히 호스트(@/www) 자리와 마지막 점(.) 여부.
- "주의 요함".SSL 경고가 뜸 → 인증서 발급 전이다. 연결 완료 후 수 시간 내 자동 발급되는 플랫폼이 대부분. 24 시간 후에도 그대로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"SSL 인증서 발급 요청" 문의.
- 사고 싶은 도메인이 이미 사용 중 → 웃돈 주고 사지 않는다. 2 안으로 간다. 도메인 이름은 순위에 거의 영향 없다.
- www 와 비 www 가 서로 다른 화면 → 플랫폼 도메인 설정에서 대표 도메인 1 개를 지정하고 나머지를 리다이렉트로 설정한다(각 플랫폼 도메인 메뉴에 있음).
- 아임웹 유료 결제가 부담 → 결정 재고가 아니라 트랙 변경 사유다. STEP 1 분기표에서 Q1 을 A 로 바꿔 다시 판정하면 티스토리가 나온다. 그 트랙으로 갈아탄다.

여기까지 완료했다면

당신은 이제 ① 검색 수요가 검증된 키워드 30 개와 ② 자기 상황에 맞는 플랫폼 위에 ③ 검색엔진에 열려 있는 살아있는 주소를 가졌다. 대부분의 사람이 "사이트 만들기"에서 몇 주를 쓰고 포기하는 구간을 반나절에 통과한 것이다.

다음 단계(유료 코스)에서는 STEP 3 필라-클러스터 구조 설계부터 STEP 5·6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·구글 서치콘솔 등록, STEP 8 검색의도별 글 템플릿, STEP 9 색인율 90% 달성 루틴까지, 같은 딸깍 방식으로 이어진다. 지금 만든 키워드금고 시트가 이후 모든 단계의 원료가 되므로 절대 지우지 말 것.

무료분은 여기까지입니다

다음 게이트가 열려 있습니다

남은 9 단계: 사이트 구조 → 기술 SEO → 네이버·구글 공식 등록 → 측정 설치
→ 글 10 개 발행 → 색인율 90% 루틴 → 개선 루프 → 수익화

저희는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대신 완주 후 8 주 내 색인율 90%·검색 노출 100 회를 약속하고, 미달 시 전액 환불합니다.

코어 코스 시작하기

rankup.example.com ← 랜딩 주소 확정 후 교체

이 PDF 는 자유롭게 공유하셔도 됩니다. 단, 내용의 수정·발췌 재배포는 금합니다. © 랭크업